

부인의 이혼과 재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및 결혼 관련 요인

서 문 희*

본 연구는 초혼의 이혼과 초혼 이혼 후 재혼에 관한 연구로서, 부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결혼결정 행태 및 결혼생활 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초혼 이혼 및 재혼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코자 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자료는 '1991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자료의 일부로서 모두 7,462명의 15~49세 기혼부인의 응답결과이며, 연구방법은 기술분석, t값 검증, 로지트 회귀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부인의 1.6%가 초혼 이혼을 경험하였는데 이들은 결혼 후 평균 약 7.5년 뒤인 29.5세경에 자녀를 1.3명 두고 이혼하였고, 이혼 사유는 약 반 가량이 성격 차이라고 표명하며, 이혼 후 막내 자녀의 양육 책임자는 부인과 남편이 반반 정도인데 남편은 주위 친척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부인 교육수준, 부인과 남편의 초혼 연령 및 부부간의 연령 차이와 더불어 교제기간, 결혼결정 방법과 같은 결혼하는 과정과 관련된 변수가 결혼 후의 이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남편 결혼연령이 20세 미만이나 35세 이상인 경우와 결혼을 당사자나 부모가 단독 결정했을 때의 2개 변수가 로지트 모형의 분석에서 유의한 이혼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혼 이혼 후 그들의 40% 가량이 재혼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재혼에는 대체로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부인의 교육수준과 이혼시 연령, 초혼과 관련된 초혼시 교제기간 및 결정방법, 그리고 부인의 이혼 후 자녀양육 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시 연령이 적을수록, 초혼 전의 교제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막내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지고 있지 않을수록 이혼 후 재혼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I. 연구의 배경

1990년과 1991년 현재 결혼 100당 이혼이

각각 10.3, 11.7로서 오늘날 결혼하여 새로이 가정을 꾸미는 수의 10% 이상 만큼은 가정을 해체하는 이혼을 하고 있다. 결혼수의 2/3 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Table 1. Divorce rate by year : 1960~1991

연도별 이혼율 : 1960~1991

Year	No. of population	No. of marriage	No. of divorce	Divorce rate (per 10,000 pop.)	Divorce rate (per 100 marr.)
1960	24,989,000	186,187	7,016	2.51	3.8
1970	31,458,000	295,137	11,615	3.69	3.9
1980	37,417,000	403,031	23,125	6.18	5.8
1990	42,793,000	381,912	39,477	9.22	10.3
1991	43,207,000	324,318	37,818	8.75	11.7

자료 : 1960년 자료는 이태영, 이혼율 연구, 1981에서 인용하였고 그 이후 자료는 통계청, 인구동태 신고 보고, 1991, 1988, 1982에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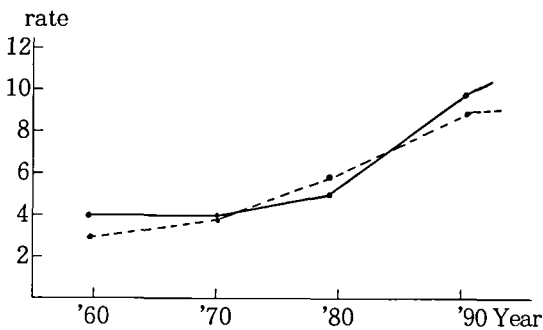


Figure 1. Trend of Increasing divorce rate
이혼 증가율 추이

도가 이혼한다는 미국(White, 1992)에 비하면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이혼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경향으로서 1960년에 3.8, 1970년에 3.9에서 1980년에는 5.8로 증가하였고 이후에 비교적 빠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1, 그림 1).

원래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한다는 개혼의식이 특히 강한 나라이다. 또 결혼은 제도적인 틀로 이를 깨기란 매우 어려운 일로서 1915년 일본 민법 적용 전까지만 해도 부인의 이혼재판 청구권이나 합의이혼이 인정되지 않았었다(이태영, 1981 : 10). 그러나 사회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어감에 따라 가족의 외

적 형태도 달라졌지만 동시에 가족 기능과 역할, 가족 권력구조 등 내적 내용에서도 변화를 겪지 않을수 없는데 부부간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에서 평등관계로 변화하고 결혼의 안정이 제도가 아닌 개인의 합의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연히 이혼도 증가하게 되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상승에서 이혼 증가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실제 부인의 42% 가량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교육수준이 높고 젊으며, 도시에 살고 있는 부인일수록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공세권, 1990 : 85).

이혼에는 이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측면 이외에도 매우 많은 요인들이 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데 White(1992)는 첫째로 법·경기주기·가족제도·성비·성별 역할·지역사회의 통합정도·문화가치와 같은 거시구조적 요인, 둘째로는 결혼 연령·결혼기간·인종·결혼 순위 및 전실 자식 유무·부모의 이혼·혼전 동거나 임신·출산과 같은 인구학적 및 인생경로 관련 요인, 그리고 세번째로 결혼생활 만족도·이혼시 고려할 사항·부부간 상호작용·사회경제적 지위·부인의 경제활동 참여·그밖의 약물 남용·불성실·경제

문제와 같은 개인적 가정생활 관련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회구조적으로 볼 때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이혼율도 변화하고(이태영, 1981, Weitzman, 1985), 성비가 높아질 경우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안정을 선호하므로 남성의 여성 선택 가능성 감소로 인하여 이혼이 감소한다(Trent and South, 1989).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성별 역할 구조의 변화도 이혼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여성의 취업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증가시켜줄 뿐만 아니라 가정에의 결속이나 부부의 상호보완적 역할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White, 1992).

인구학적 요인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연령과 결혼연령은 높아질수록 이혼율이 낮아지며 결혼기간도 높을수록 이혼율이 낮다는 증거는 많다(Thornton and Rodgers, 1987, Martin and Bumpass, 1989). 인생경로에서 혼전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이혼율이 높는데 이는 이 둘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라기보다는 결혼과 관련된 규범을 무시하고자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Kahn and London, 1991). 또한 이혼한 부모를 둔 자녀의 이혼율도 상대적으로 높다(Greenberg and Nay, 1982).

가정생활과 관련해서는 결혼 만족도가 낮은 경우 이혼할 확률이 매우 높고, 또한 함께 보내는 시간을 포함한 상호작용 정도도 주요 이혼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혼은 단순한 결혼생활의 만족, 불만족 정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과 관련된 대안 및 방해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자녀양육 등 이혼 비용이 높고 수입이나 취업과 같은 대안이 적을 때 이혼보다는 화해를 선택한다는 주장이 있다(White, 1992). 개인적인

수준에서 사회·경제적 수준과 이혼은 거시적 차원과는 달리 반비례 관계로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이혼이 많다(Martin and Bumpass, 1989).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이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단순한 취업 여부보다는 취업 유형과 가족성원의 가사분담과 같은 가정의 사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White, 1992).

한편 재혼과 관련해서는 1990년과 1991년도의 총 결혼수 중에서 부인들 기준으로 볼 때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8%, 5.0%로 집계되었다(통계청, 1992). 미국의 경우 연평균 결혼수의 40% 이상이 신부나 신랑 또는 두 사람 모두의 재혼이라는 것(Coleman and Ganong, 1990)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나 이혼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재혼도 늘어날 전망이다. 재혼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도 부인의 42%가 여성의 재혼을 찬성하고 있다(공세권, 1990 : 85).

재혼과 관련해서는 주로 사회인구학적 차원에서 그 요인을 찾으려 하는데 연령과 자녀가 주요 요인이 되며 특히 여성의 경우 젊을수록 보다 빠르게 재혼한다고 한다(Coleman and Ganong, 1990). 교육수준이 낮은 부인의 재혼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종교가 천주교일 경우도 재혼율이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Teachman, 1986). 소득수준은 남자와 여자가 각기 다른 관계를 보여서 남자는 정비례 관계이고 여자는 반비례를 나타낸다(Coleman and Ganong, 1990). 이외에도 인종이나 문화환경 등이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결혼결정 과정에 국한해서 초혼 이혼을 설명하여 보고자 하였고, 또한 초혼 이혼부인의 재혼을 이질 변인 및 초혼 결혼 관련 변수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먼저 초혼 이혼을 경험한 부인과 그렇지 않은 부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초혼 형태 및 결혼생활 관련 특성 차이를 파악하고, 둘째로 초혼 이혼 부인 중 재혼한 부인과 무배우 상태로 남아있는 부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초혼 형태 및 결혼생활과 관련된 특성 차이를 파악하며, 셋째로 이를 바탕으로 이혼과 재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1년 당원에서 실시한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자료의 일부로 7,462명의 15~49세 기혼부인의 응답 결과이다.

주요 변수는 초혼과 관련해서는 부인 및 남편의 연령과 부부의 연령차, 초혼결정 과정의 특성으로 결혼 인연, 결정 과정, 결혼전 교제기간, 그리고 이혼과 관련해서 이혼시 연령, 자녀수 및 막내 양육 여부, 이혼 사유 등이다. 본 연구는 기존 자료의 분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변수는 자료상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변수의 선정은 이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백분율, t값 검증, 로지트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먼저 초혼 이혼 및 그후에 재혼을 한 부인의 여러가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백분율을 제시하는 기술적인 방법과 평균 차이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한 t값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어서 이들 특성이 이혼 및 재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이혼 및 재혼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지트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부인의 초혼 이혼

1) 현재 특성별 초혼 이혼 경험 비율

본 연구의 대상인 15~49세의 기혼부인 7,462명 중에서 조사 당시까지 초혼을 이혼으로 끝낸 부인의 비율은 1.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비율은 조사 시점에서의 배우자 유무상태가 아니라 조사 당시까지의 초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혼 관련 조사자료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부인의 현재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거주지역별로는 도시 거주 부인의 1.7%, 농촌 거주 부인의 1.3%가 초혼 이혼을 경험해서 농촌에 비해 도시 거주 부인의 초혼 이혼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누적효과 때문에 연령이 많아질수록 이혼 경험 부인의 비율이 높아져서 40~40세와 45세 이상 부인에서 각각 2.4%, 2.8%로 집계되었고, 24세 미만에서는 한 경우도 잡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인의 결혼연도별 이혼비율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1965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의 이혼비율이 3.2%인 반면에 '80~'84년, '85~'91년은 각각 1.4%, 0.3%였다.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이혼 부인의 평균 교육년수가 8.6년이고 이혼 경험이 없는 부인의 교육년수는 10.0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교육정도별로 볼 때는 국민학교 수준의 부인이 2.6%로 그 나머지 학력을 가진 부인들의 이혼 경험률 1.3%에 비해서 약 2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에 대한 교육이 이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

Table. 2. Percentage distribution of the divorced by current characteristics among 15~49 ever married women

부인의 현 특성별 초혼 이혼경험 여부 백분율 분포

Characteristics	Divorced	Not	Characteristics	Divorced	Not
Total(N=7,462)	1.6	98.4	Educational level		
			Primary sch.(N=1,710)	2.6	97.4
Residence			Middle/High sch.(N=5,001)	1.3	98.7
Urban(N=5,856)	1.7	98.3	College or more(N=742)	1.3	98.7
Rural(N=1,606)	1.3	98.7	Mean years**	8.6	10.0
Age			Religion		
~24(N=381)	-	100.0	Buddist(N=2,283)		
25~29(N=1,465)	0.5	99.5	Protestant(N=1,637)	1.7	98.3
30~34(N=1,832)	1.8	98.2	Catholic(N=615)	1.7	98.7
35~39(N=1,537)	1.4	98.6	Others(N=58)	1.6	98.6
40~44(N=1,278)	2.4	97.6	None(N=2,819)	3.4	96.6
45+ (N=966)	2.8	97.2		1.5	98.5
Year of marriage			Employment		
~64(N=375)	3.2	96.8	Employed(N=2,706)	2.7	97.3
65~69(N=873)	2.3	97.7	Pro./clerk(N=279)	1.1	98.9
70~74(N=1,187)	2.6	97.4	Sales/services(N=1,144)	4.2	95.8
75~79(N=1,405)	2.1	97.9	Agricultural work(N=449)	1.0	99.0
80~85(N=1,681)	1.4	98.6	Unskilled worker(N=814)	2.2	97.8
85~91(N=1,919)	0.3	99.7	Not employed(N=4,756)	1.0	99.0

** P < .01 (<표 6> 참조)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과 이혼율과는 반비례한다는 기존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종교별로는 무교, 불교, 개신교 및 천주교가 별 차이 없는 반면에 기타 종교를 믿는다는 부인의 경우는 3.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절대수는 얼마 안 되지만 기타 종교를 갖는 부인들의 초혼 이혼 경험률이 높은 것은 한편으로는 기타 종교에 귀의하는 것 자체가 이혼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초혼 이혼 후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불안정한 심리적 이유로 기타 종교를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부인의 현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현재 취업 중인 부인의 2.7%가 초혼 이혼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비해서 취업 중이 아닌 부인은 1.0%만이 초혼을 이혼으로 끝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취업 중이라 하더라도 직종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즉 판매 서비스에 종사하는 부인의 이혼비율이 4.2%로 매우 높

고 단순 미숙련 직종이 2.2%로 비교적 높은 반면에 전문 사무직 및 농업 관련 종사자의 경우는 취업 중이 아닌 부인의 비율과 유사한 수준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업이나 직종이 기혼부인의 이혼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기 보다는 이혼 이후에 뚜렷한 경력이나 기술이 없는 부인의 생계수단 또는 생활비의 보충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결국은 판매 서비스업 및 단순 노무직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이는 이혼, 별거, 사별을 포함하여 해혼 이후 본인이 직접 생활비를 벌었다는 비율이 79.5%라는 출산력 조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공세권 외, 1992: 97).

2) 초혼 이혼부인의 이혼시 상황

조사 대상자의 1.6%에 달하는 초혼 이혼부인들의 초혼 이혼시의 상태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부인의 초혼 이혼시 연령은 평균 29.5세이고 계급별 분포로는 25~29세가 40.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34세로 24%이고 24세 미만, 35~39세가 각각 16.6%, 12.4%이고 40세가 넘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는 6.8%로 나타나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이혼의 가능성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결혼기간은 평균 7.5년인데 분포를 보면 6~10년이 33.9%로 가장 많고 결혼후 2년 및 3~5년까지가 각각 20%씩이고

Table 3. Percentage distribution of various characteristics at the time among those who divorced the first marriage

초혼 이혼부인의 이혼시 상황 특성 백분율 분포

Characteristic	%	Characteristic	%
Age(Mean 29.5 Years)		Reason for divorce	
~24	16.6	Disparity in character	48.6
25~29	40.3	Unfaithfulness	22.8
30~34	24.0	Violence	10.3
35~39	12.4	Ignorance of supporting duty	3.2
40+	6.8	Infecundity	8.2
Total(N)	100.0(121)	Disharmony with relatives	5.2
		Others	1.5
Marrital duration(Mean 7.5 Years)		Total(N)	100.0(116)
~ 2 years	19.8	Care taker of the last child	
3~ 5	20.4	Herself	
6~10	33.9	Husband	50.4
11~15	15.3	Her relatives	38.5
16+	10.2	Husband's relatives	1.9
Total(N)	100.0(121)	Others	6.0
		Total(N)	3.2
No. of children(Mean 1.3)			
0	26.7		100.0(85)
1	31.4		
2	23.8		
3+	18.2		
Total(N)	100.0(120)		

11~15년과 16년 이상이 각각 15.3%, 10.2%였다.

이혼시 자녀수는 1.3명이다. 자녀가 없는 경우가 26.7%이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도 18.2%였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자녀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지만, 점차 자녀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한다는 태도는 감소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 후 가장 큰 문제는 자녀 양육이고 자녀의 연령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려운데, 자녀가 있는 경우 막내 자녀를 누가 보살폈는가에 대해서는 부인 자신이 50.4%이고 남편 38.5%, 남편의 친척 6.0%로서 남편과 부인이 대략 반씩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시 이혼사유는 성격차이가 48.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부정(不貞)으로 22.8%이고 폭력 10.3%, 불임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동태 신고 자료에 의하면, 1990년도 이혼 부인의 이혼 사유 중 82.9%가 부부간의 불화이고, 3.5%가 가족간의 불화이며, 건강문제와 경제문제가 각각 1.4%, 1.8%를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1992 : 300).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 양상을 말하면, 결혼 후 약 7.5년 뒤인 29.5세경에 자녀를 1.3명 두고 이혼하는 확률이 가장 크며 이혼 사유는 약 반 가량이 성격 차이라고 표명하며 이혼 후 막내 양육은 부인과 남편이 반반 정도인데 남편은 주위 친척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는 확률이 크다.

3) 초혼 특성별 초혼 이혼경험 비율

일반적으로 일찍 결혼한 부인이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본 연구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가정을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다. 부인의 연령별 이혼비율인 19세 미만이 3.1%로 가장

높았고 25~29세가 1.6%, 20~24세가 1.3%이고 30세 이상이 1.1%로 가장 낮다. 평균연령은 이혼 부인이 22.0세, 그 나머지 부인이 22.6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남편 초혼연령은 여성 초혼연령과는 달리 35세 이상이 7.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20세 미만으로 4.7%였다. 20~24세가 2.0%, 30~34세 1.7%이고 20~24세가 1.2%로 가장 낮아 변형된 U자형을 나타냈고, 따라서 평균으로는 각각 26.2세, 26.4세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 Divorce rate by characteristics of age at the first marriage

부인의 초혼연령 특성별 이혼 백분율 분포

Variables	Divorced	Not
Wife's age at marriage		
~19(N=1,009)	3.1	96.9
20~24(N=4,675)	1.3	98.7
25~29(N=1,685)	1.6	98.4
30+(N=93)	1.1	98.9
Mean age**	22.0	22.6
Husband's age at marriage		
~19(N=134)	4.7	95.3
20~24(N=1,675)	2.0	98.0
25~29(N=4,634)	1.2	98.8
30~34(N=894)	1.7	98.3
35+(N=1,018)	7.7	92.3
Mean age ¹⁾	26.2	26.4
Age difference(Hus's-Wife's)		
Less than 1 year(N=842)	1.7	98.3
1~4 years(N=3,941)	1.5	98.5
5~8 years(N=2,180)	1.1	98.9
9 years or more(N=492)	3.8	96.2
Mean years ¹⁾	4.3	3.8

** P<.01, 1) Not Significant(표 6. 참조)

부인과 남편의 초혼시 연령 차이별로 보면, 연령 차이가 아주 많을 때 이혼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9세 이상의 차이가 날 경우가 3.8%로 매우 높고, 그 다음은 부인 나이가 많거나 동갑인 경우와 1~4세 차이가 각각 1.7%, 1.5%이고 3~8세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차이가 많은 부부의 높은 이혼율은 부부의 동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연령 차이가 적을 경우는 연령으로 인해 부부간의 권력구조에서 갈등이 나타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연령 차이의 부부에 비해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여성은 너무 일찍 결혼할 경우에 이혼할 가능성이 높고 남자는 아주 늦거나 아주 일찍 결혼할 경우에 위험 부담이 크다. 나이가 너무 어리면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되고 감정에 의존하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며, 또 나이가 너무 많으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결혼에 임하게 되고 그런 결과가 여기에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연령 차이는 8년을 넘

지 않는 것이 이혼 가능성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할 수 있겠다.

다음은 결혼과정 행태와 관련하여 이 비율을 알아 보았다. 결혼시 인연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결혼 결정은 누가 주도하였고 또한 결혼 때까지의 교제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에 따른 차이이다.

먼저 결혼 결정시 누가 결혼 결정권을 가졌느냐인데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 혼자서 결정했다는 부인의 4.2%가 초혼을 이혼으로 끝냈으며, 부모 혼자 결정이라는 경우가 3.4%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부모 결정 뒤 본인의 동의나 본인 결정 뒤에 부모가 동의했다는 부인의 경우는 각각 0.8%, 1.1%의 낮은 초혼 이혼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결혼 당사자 및 그 부모에 의한 단독적 결정보다는 결혼 당사자와 부모의 합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음을 반영하였다.

결혼 때까지의 교제기간별로는 교제기간의 길고 짧음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제기간이 거의 없었다는 부인의 경우는 이혼비율이

Table 5. Divorce rate by characteristics of process of selecting spouse

부인의 배우자 선택과정 특성별 이혼 경험률 분포

Variables	Divorced	Not	Variables	Divorced	Not
Decision process in selection			Matrimonial process		
Parents alone(N=619)	3.4	96.6	Relative's matchmaking (N=3,249)	1.3	98.7
Parents had priority(N=1,822)	0.8	99.2	Friend's matchmaking (N=1,757)	1.8	98.2
Person herself had priority (N=4,061)	1.1	98.9	Neighbor's matchmaking (N=352)	2.2	97.8
Person herself alone(N=871)	4.2	95.8	Love match with friend (N=1,279)	1.7	98.3
Duration of acquaintance			Love match in meeting(N=352)	2.4	97.6
Less than 1 month(N=1,518)	1.4	98.6	Others(N=488)	2.0	98.0
1~12 months(N=3,860)	1.4	98.6			
13~24 months(N=878)	1.2	98.8			
25 months or more(N=1,170)	11.7	14.5			
Mean ¹⁾					

1) Not Significant (<표 6> 참조)

2.7%로 나머지 부인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평균 교체기간은 이혼한 부인이 11.7개월이고 이혼하지 않은 부인이 14.5개월로 산출되어 t값 검증에서는 유의한 수준으로 판명되지는 않았으나 2.8개월의 차이를 보였다. 함께 오래 산 부부가 습성뿐만 아니라 얼굴 모습까지도 닮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남녀가 만나 새로이 인생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서로를 알고 이해하게 되는 교체기간이 결코 결혼 후의 생활이나 이혼과 무관치 않음이다.

한편 결혼 인연을 어떻게 맺게 되었느냐에 따른 비율은 연애나 중매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중매의 경우는 부모, 형제, 친척 등 가족 중매의 경우가 1.3%로 가장 안정성이 높았고, 학교 및 직장 선배나 친구의 중매가 1.8% 수준이며 이웃의 중매라는 경우가 2.2%로 비교적 높았다. 한편, 연애의 경우는 친구나 학

교나 직장 선배와의 연애결혼인 경우 각각 1.7%의 이혼비율을 기록한 반면에 사회단체나 모임에서의 연애가 2.4%로 비교적 높았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혈연관계를 통한 중매의 경우가 이혼율이 비교적 낮다.

결혼 행태와 관련해서 부인의 이혼을 요약하면, 여성은 결혼연령이 빠를수록, 남자는 아주 늦거나 빠를 경우 이혼할 가능성이 높고 연령 차이도 3세 미만이거나 9년 이상일 때 이혼 확률이 높아짐을 보인다. 결혼과정 행태와 관련해서는 이웃의 중매나 사회적 모임에서 만나 교체기간 없이 부모나 또는 당사자의 단독 결정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다른 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혼 가능성이 높다.

<표 6>은 앞의 <표 2>부터 <표 5>까지에서의 초혼 이혼 여부에 따른 두 집단간의 부인의 특성 평균에 대한 t값 검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Table 6. Result of T-test on characteristic of women by divorce experience of the first marriage

초혼 이혼경험 여부별 부인 특성에 대한 T-test 결과

Characteristics	Mean	S.D.	S.E.	T-value(DF)	2 tail prob.
Educational duration					
Divorced(N=120)	8.6	3.84	.038	-4.79(7,437)	.000
Not divorced(N=7,318)	10.0	3.28	.350		
Wife's age at marriage					
Divorced(N=121)	22.0	3.37	.306	-2.57(7,457)	.010
Not divorced(N=7,338)	22.6	2.82	.033		
Hus.'s age at marriage					
Divorced(N=118)	26.2	4.21	.378	-.78(7,451)	.438
Not divorced(N=7,334)	26.4	3.30	.039		
Age difference(Hus.'s-Wife's)					
Divorced(N=118)	4.3	4.03	.365	1.71(7,451)	.087
Not divorced(N=7,334)	3.8	2.90	.034		
Duration of acquaintance					
Divorced(N=121)	11.7	19.02	1.701	-1.59(7,424)	.132
Not divorced(N=7,305)	14.5	20.11	.232		

2. 초혼 이혼부인의 재혼

1) 초혼 이혼부인의 현 특성별 재혼 비율

출산력 조사 전체 대상자 중에서 초혼을 이혼으로 끝낸 부인의 비율은 1.6%였는데 이들 중에서 조사 당시 재혼을 했다는 비율은 40.9%이고 59.1%는 초혼 이혼 상태로 남아 있었다.

재혼부인의 재혼 평균연령은 29.6세이고 그 남편의 평균연령은 36.4세로서 6.7년의 연령 차이를 보였다<표 7>.

Table 7. Percentage distribution of age at remarriage of the divorced

초혼 이혼부인의 재혼 연령 백분율 분포	
Age variables	%
Wife's age at remarriage	
~24	14.5
25~29	30.4
30~34	32.9
35+	22.2
Total(N)	100.0(50)
Mean age	29.6
Husband's age at remarriage	
~34	26.0
35~39	40.0
40~44	18.0
45+	16.0
Total(N)	100.0(50)
Mean age	36.4
Age difference(Hus'.s-Wife's)	
Less then 1 year	9.8
1~4 years	48.8
5~8 years	20.9
11 years or more	20.6
Total(N)	100.0(50)
Mean years	6.7

<표 8>은 초혼 이혼부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재혼 차이는 먼저 거주지역별로는 도시 거주 초혼 이혼부인의 33.7%, 농촌 거주 초혼 이혼부인의 76.2%가 초혼 이혼 후 재혼을 한 것으로, 이혼은 도시에서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이혼 후 재혼비율은 농촌이 도시에 비해 상당 수준 높았다. 한편, 현재 연령별 초혼 이혼부인의 재혼비율은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초혼 이혼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재혼비율 차이는 재혼부인의 평균 교육년수가 7.7년이고 재혼하지 않은 부인의 교육년수는 9.1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교육 정도별로 볼 때는 국민학교 수준의 이혼부인의 재혼비율이 52.5%로 가장 높고 중·고등학교 수준이 35.1%이고 대학 이상은 27.5%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혼율도 높고 이혼 후 재혼비율도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종교별로는 초혼 이혼부인이 천주교를 믿는 경우 절대수가 작기는 하지만 25.2%로 그 나머지의 40~42% 보다 낮은 재혼율을 보여 Teachman (1986)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초혼 이혼부인의 현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현재 취업 중인 경우가 21.7%의 재혼율을 보인 반면에 취업 중이 아닌 초혼 이혼부인은 70.2%의 재혼율을 나타냈다. 즉 취업중인 부인의 이혼율은 높으나 이혼 후의 재혼비율은 낮다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혼비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직종에 따라 차이를 보여 판매 서비스업 종사 이혼 부인의 재혼비율은 12.8%로 아주 낮았다. 이는 이혼 뒤에 재혼을 하지 않으면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 중에서도 판매 서비스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 또 취업을 하여 경제적 독립이 어느

Table 8. Remarriage rate by current characteristics of the divorced

초혼 이혼부인의 현 특성별 재혼 여부 백분율 분포

Characteristics	Remarried	Not	Characteristics	Remarried	Not
Total(N=121)	40.9	59.1			
Residence			Religion		
Urban(N=101)	33.7	66.3	Buddist(N=40)	40.5	59.5
Rural(N=20)	76.2	23.8	Protestant(N=29)	*41.6	58.4
Age			Catholic(10)	35.2	64.8
~29(N=39)	37.9	62.1	None(N=41)	39.8	60.2
30~34(N=24)	47.8	52.2	Employment		
35~39(N=31)	36.9	63.1	Employed(N=73)	21.7	87.3
40+(N=27)	43.8	56.2	Sales/services(N=48)	12.8	97.2
Educational level			Others(N=26)	27.3	72.7
Primary sch.(N=45)	52.5	47.5	Not employed(N=35)	70.2	29.8
Middle/High sch.(N=67)	35.1	64.9			
College or more(N=10)	27.5	72.5			
Mean years*	7.7	9.1			

* P<.05 (<표 12> 참조)

정도 가능하게 되면 재혼의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자의 경우 소득 수준과 재혼율은 반비례한다는 Coleman and Ganong(199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2) 초혼 이혼부인의 초혼 특성별 재혼비율

먼저 초혼 특성 중에서 부인의 초혼연령과 부인·남편의 초혼연령차에 따른 이혼부인의 재혼비율은 25세를 기준으로 차이를 보인다<표 9>. 20세 미만 및 20~24세에 결혼했다 이혼한 부인의 각각 43.8%, 45.1%가 재혼한 반면에 25세 이상은 낮다. 전체 평균에서도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부인과 남편의 초혼시 연령 차이별로 보면 대체로 연령 차이가 큰 남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부인이 이혼 후에 재혼비율이 높았다. 평균을 보아도 재혼부인의 연령차가 4.8세인데 비해서 재혼하지 않은 부인의 연령 차이는 3.8세로 1살의 차이를 나타냈다. 앞에서와 같이

Table. 9 Remarriage rate by age at the first marriage

초혼 이혼부인의 초혼연령 특성별 재혼여부

Age	Remarried	Not
Wife's age at marriage		
~19(N=31)	43.3	56.2
20~24(N=62)	45.1	54.9
25+(N=28)	28.8	71.2
Mean age ¹⁾	21.3	22.4
Age difference(Hus.'s-Wife's)		
Less than 1 year(N=14)	33.0	67.0
1~4 years(N=60)	39.4	60.6
5~8 years(N=25)	40.3	59.7
9 years or more(N=19)	54.3	45.7
Mean years ¹⁾	4.8	3.8

1) Not Significant (<표 12> 참조)

동질성이란 의미로 해석한다면 동질성이 약한 결혼일수록 이혼후 재혼이 쉽다 하겠다.

즉 여성은 너무 일찍 결혼할 경우에 이혼 및 재혼할 가능성이 높고 남편, 부인간의 연령 차이는 비교적 많을 때 이혼 및 재혼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초혼 이혼부인의 결혼 행태와 관련하여 재혼 비율을 알아 보았다. 먼저 결혼 결정시 누가 결혼 결정권을 가졌느냐인데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 혼자서 결정했다와 부모 혼자 결정이라는 경우가 모두 53%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부모 결정 뒤 본인의 동의나 본인 결정 뒤에 부모가 동의했다

Table 10. Remarriage rate by characteristics of process of selecting spouse in the first marriage

부인의 배우자 선택과정 특성별 재혼 백분율 분포

Mate selection process	Remarried	Not
Decision process in selection		
Parents alone(N=21)	53.7	46.3
Parents had priority(N=16)	32.2	67.8
Person herself had priority(N=46)	30.3	69.7
Person herself alone(N=36)	53.1	46.9
Duration of acquaintance		
Less than 1 month(N=41)	60.1	39.9
1~12 months(N=53)	37.8	62.2
13~24 months(N=12)	30.0	70.0
25 months or more(N=14)	7.4	92.6
Mean years*	7.1	14.9
Matrimonial process		
Relatives' matchmaking(N=42)	51.3	48.7
Friend's matchmaking(N=30)	28.9	71.1
Neighbor's matchmaking(N=8)	53.5	46.5
Love match with friend(N=22)	31.6	68.4
Love match in meeting(N=8)	50.9	49.3
Others(N=10)	36.0	64.0

* P<.01 (<표 12> 참조)

는 부인의 경우는 30~32%의 비교적 낮은 재혼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결혼 당사자 및 그 부모에 의한 독단적 결정시 이혼비율도 높고 또한 이혼 후 재혼 가능성도 높다.

결혼 때까지의 교제기간별로는 교제기간이 1달 미만으로 거의 없는 경우가 60.1%로 높게 나타났고, 1~12개월이 37.8%, 13~24개월이 30.0%이고 그 이상의 교제기간을 가진 이혼부인들은 7.1%로 낮은 재혼율을 보였다. 교제기간이 길수록 이혼 이후의 재혼비율이 낮다. 평균으로는 이혼 이후 재혼한 부인의 초혼시 교제기간이 7.1개월인데 비해서 재혼하지 않은 부인은 14.9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결혼 인연을 어떻게 맺게 되었느냐에 따른 비율은 연애나 중매나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중매의 경우는 부모 등 가족의 중매, 이웃의 중매와 사회단체나 모임에서의 연애로 결혼했다 이혼한 경우는 51~53%로 친구나 선배의 중매나 친구나 선배와의 연애로 결혼했다 이혼한 경우에 비해 높은 재혼비율을 보였다. 혈연관계의 중매를 통해 결혼한 경우 이혼율은 낮으나 일단 이혼한 사람들의 재혼율은 비교적 높음이 특이하다.

3) 초혼 이혼부인의 이혼시 상황별 재혼비율

조사 대상자의 1.6%에 달하는 초혼 이혼부인들의 초혼 이혼시의 상태에 따라 재혼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부인의 초혼 이혼시 연령은 평균 29.5세인데 이들을 재혼여부를 중심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본 결과 재혼한 부인들의 평균 이혼연령은 26.7세이고 재혼하지 않은 부인의 이혼연령은 31.4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적으로 말하면, 26.7세에 이혼한 부인들이 약 3년 뒤인 29.6세에 재혼한다는 것으로 젊은 이혼여성일수록 보다 빨리 재혼함을

Table 11. Remarriage rate by characteristics at the time of divorce

초혼 이혼부인의 이혼시 상황 특성별 재혼 여부 백분율 분포

Characteristic	Remarried	Not	Characteristic	Remarried	Not
Total(N=121)	40.9	59.1	No. of children		
Age			0(N=32)	65.7	34.3
~24(N=20)	76.1	23.9	1(N=38)	36.1	63.9
25~29(N=49)	49.0	51.0	2(N=28)	27.5	72.5
30~34(N=29)	22.6	77.4	3+(N=22)	32.8	67.2
35+(N=23)	16.4	83.6	Mean**	0.9	1.6
Mean age**	26.7	31.4	Reason for divorce		
Marrital duration			Disparity in character(N=57)	32.1	67.9
2 years or less(N=24)	66.7	33.3	Unfaithfulness(N=27)	37.5	62.5
3~ 5years(N=25)	46.0	54.0	Violence(N=12)	38.3	61.7
6~10years(N=41)	37.3	62.7	Infecundity(N=10)	69.8	30.2
11~15years(N=19)	24.6	75.4	Others(N=12)	33.3	66.7
16+years(N=21)	17.2	82.9	Care taker of the last child		
Mean years**	5.4	9.0	Herself(N=43)	10.8	89.2
			Husband(N=33)	42.8	57.2
			Others(N=10)	50.0	50.0

** P<.01 1) Not Significant (<표 12> 참조)

알 수 있다. 분포상으로 보아도 이혼 연령이 빠를수록 재혼비율이 높는데 특히 24세 미만과 25~29세가 각각 76.1%, 49.0%로 30세 이상에서 이혼한 부인들의 재혼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혼시 연령과 재혼 여부와의 관계는 초혼 결혼기간별 재혼비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재혼부인의 결혼기간이 5.4년인데 비해서 재혼하지 않은 초혼 이혼부인의 결혼기간은 평균 9.0년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른 재혼비율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혼시 자녀수는 평균 1.3명이고 재혼부인의 경우는 자녀수가 1.6명이고 재혼하지 않은 경우는 0.9명으로 유의하게 달랐다. 자녀수별 재혼율을 보면, 자녀가 없는 이혼부인의 65.7%가 재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자녀수별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자녀가 있는 경우 막내 자녀를 누가 보살폈는가에 따른 재혼비율의 차이는 그녀 자신이 돌본다는 경우가 10.8%에 지나지 않으나 남편이 돌본다는 부인은 42.8%가 재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양육 부담을 지지 않는 이혼부인의 재혼이 훨씬 수월함이다.

이혼시 이혼사유별 재혼비율을 보면, 절대수가 작아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불임 때문에 이혼한 경우가 69.8%로 가장 높은 재혼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2>는 앞의 <표 7>에서 <표 11>까지에 제시된 재혼부인과 재혼하지 않은 부인의 특성 평균치에 대한 t값 검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Table 12. Result of T-test on characteristic of women who divorced the first marriage by remarriage experience

초혼 이혼부인의 재혼여부별 특성에 대한 T-test 결과

Characteristics	Mean	S.D.	S.E.	T-value(DF)	2 tail prob.
Educational duration					
Remarried(N=50)	7.7	3.57	.511	-2.01(118)	.047
Not Remarried(N=71)	9.1	3.94	.466		
Characteristics in the first marriage					
Wife's age at marriage					
Remarried(N=50)	21.3	2.92	.415	-1.80(119)	.074
Not Remarried(N=72)	22.4	3.60	.426		
Age difference(Hus.'s-Wife's)					
Remarried(N=49)	4.8	4.33	.621	-1.32(116)	.189
Not Remarried(N=70)	3.8	3.67	.440		
Duration of acquaintance					
Remarried(N=50)	7.1	19.7	2.802	-2.26(119)	.026
Not Remarried(N=72)	14.9	18.0	2.127		
Characteristics at the time of divorce					
Age at divorce					
Remarried(N=50)	26.7	4.53	.643	-5.08(119)	.000
Not Remarried(N=72)	31.4	5.37	.634		
Marital duration					
Remarried(N=50)	5.4	4.10	.584	-3.79(119)	.000
Not Remarried(N=72)	9.0	5.77	.682		
No. of children					
Remarried(N=47)	0.9	1.00	.152	-3.56(115)	.001
Not Remarried(N=70)	1.6	1.10	.134		

3. 이혼과 재혼의 결정요인

1) 이혼 결정요인

이혼 결정요인 분석방법으로는 OLS방식의 분석방법보다는 로지트 모형에 의한 회귀분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되고 있다(White, 1992). 여기서도 앞에서 살펴본 제반 결혼 관련 변수들 중에서 이혼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 변수를 대상으로 로지트 회귀분석 방법을 따라

이혼을 설명하여 보기로 하였다. 여러 변수 중에서 기술적 분석 및 t값 검증에서 이혼과 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는 변수들 중에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를 고려하여 그 중에서 부인의 교육수준, 부인의 초혼연령, 남편 초혼연령, 부부간 연령 차이 그리고 결혼과정 행태 변수로 결혼 단독결정 여부, 교제기간의 6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앞의 기술분석상에 나타난 결과

를 토대로 하여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부간의 연령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1과 0의 코드를 주어 처리하였다. 부인의 초혼연령은 20세 미만을 1로 주고 그 이상은 0으로 처리하였고, 남편의 초혼연령은 20세 미만과 35세 이상은 1로, 그 나머지는 0의 코드를 주었다. 부인의 교육정도는 국민학교 수준과 그 이상을 각각 1, 0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결혼결정 과정 특성은 부모나 당사자에 의한 단독 결정을 합의에 의한 결정과 구분하여 1과 0의 코드를 주었으며, 초혼 전 교제기간은 1달을 기준으로 그 미만과 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처리한 독립변수간의 단순상관성은 낮아서 계수는 그 절대값이 최고 .38을 넘지 않는다.

분석결과를 보면 6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남편의 초혼연령과 결혼시 부모나 당사자의 단독 결정의 2개 변수가 초혼 이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부인의 초혼연령과 혼전 교제기간은 유의한 수준은 아니나 이혼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부부의 연령 차이는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났다 <표 13>.

즉 인구학적 변수인 초혼연령과 더불어 결혼

을 하는 과정과 관련된 변수가 결혼 후의 이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편연령이 20세 미만이거나 35세 이상일 경우 그리고 결혼 결정을 당사자나 그 부모가 단독으로 결정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혼의 직접적 이유는 결혼생활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럴수 있는 소지는 언제 어떻게 결혼하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재혼 결정요인

앞에서 살펴본 제반 변수들 중에서 재혼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변수들로서 초혼 이혼 부인의 재혼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기술분석이나 t값 검증에서 재혼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 중에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고려하여 5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즉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부인의 교육수준과 이혼시 연령, 초혼과 관련된 초혼 결혼시 교제기간 및 결정방법, 그리고 부인의 이혼 후 자녀양육 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이혼 결정요인 분석에서와 같이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임을 고려하여 로지트 모형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수의 처리는 5개 중 결혼결정 과정

Table 13. Results of Logit regression on determinants of divorce of the first marriage

초혼 이혼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트 회귀분석

Variables	Coefficients	z
Wife's age at the first marriage(1=less than 20)	.170	1.43
Husband's age at the first marriage(1=less than 20 or more than 34)	.462	2.90**
Educational level(1=primary school or less)	.093	.82
Age difference between husband's and wife's	.001	.77
Decision process in marriage(1=parents alone or person herself alone)	.514	5.17**
Duration of acquaintance before marriage(1=less than 1 month)	.134	1.18
Intercept		2.64
Pearson goodness of fit	X ² =7,279.1	DF=7,367 P=.769

** P<.01

Table 14. Results of logit regression on determinants of remarriage after divorcing the first marriage

초혼 이혼 부인의 재혼 결정요인에 관한 로지트 회귀분석

Variables	Coefficient	z
Age at divorce	-.301	-2.20*
Year of education	-.012	-.37
Duration of acquaintance in the first marriage	-.249	-2.53*
Decision process in marriage(1=parents alone or person herself alone)	.248	1.10
Care taker of the last child(1=person herself)	-.598	-2.21*
Intercept		6.01
Pearson goodness of fit	X ² =107.9 DF=107 P=.457	

* P < .05

에서의 당사자와 부모의 단독 결정을 1로, 그 나머지를 0으로 주었으며 막내 자녀 양육부담 변수도 1, 0으로 코드화하고 나머지 3개 변수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5개 독립변수간의 단순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최고 .55이다.

분석결과에서는 이혼시 연령이 적을수록, 초혼시 교제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막내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지고 있지 않을수록 이혼 후 재혼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음을 보여 주었다<표 14>. 젊어서 이혼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지고 있지 않을 때 홀가분하게 재혼에 임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고, 또한 혼전 교제기간이 두 사람이 서로 알 수 있는 기간이므로 첫 결혼의 교제기간이 짧을 경우 감정적으로도 첫 결혼에 대한 부담이 약하기 때문에 재혼이 보다 쉽지 않나 생각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초혼을 이혼으로 끝낸 부인과 초혼 이혼 후 재혼을 한 부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결혼결정 행태 및 결혼생활 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초혼 이혼 및 이혼 후 재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자료는 '1991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 조사' 자료의 일부로서 모두 7,462명의 15~49세 기혼부인의 응답결과이며, 분석방법은 기술 분석, t값 검증, 로지트 회귀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이혼비율은 최근에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는데 출산력 조사 대상 부인은 1.6%가 초혼 이혼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평균 결혼 후 약 7.5년 뒤인 29.5세경에 자녀를 1.3명 두고 이혼하는데 이혼사유는 약 반 가량이 성격 차이라고 표방하며 이혼 후 막내 양육은 부인과 남편이 반반 정도씩이고 남편은 주위 친척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초혼 이혼부인의 40.9%는 재혼을 하였다. 이혼할 당시 연령이 적고,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이혼 후 양육부담을 지고 있지 않을수록 재혼비율이 높았다.

부인의 현재 특성별로 보면, 도시 거주 부인의 이혼비율이 높으나 이들의 재혼비율은 농촌이 더 높았다. 연령과 결혼연도별 이혼율은 누적효과를 보였으나 재혼과는 무관하였다. 교육수준은 국민학교 학력 수준의 부인들이 이혼이 많고, 재혼비율도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높았

다. 종교는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초혼 이혼 비율이 높았고, 이혼한 부인들의 경우는 천주교 신자의 재혼율이 다른 부인들에 비해 낮았다. 취업은 현재 취업 중, 특히 판매 서비스에 종사하는 부인의 이혼율이 높았으며, 재혼은 이들이 낮았다. 이혼 후 판매 서비스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지면 재혼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부인의 초혼연령은 20세 미만일 때 이혼율이 높고 남편은 35세 이상이거나 20세 미만에서 높은 이혼율을 보였고, 부부의 연령 차이는 9년 이상이 이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혼부인의 재혼은 부인의 초혼연령이 적을수록, 그리고 부부간 연령차는 많을수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행태와 관련해서는 결혼전 교제기간이 거의 없고 결혼 결정을 부모나 당사자가 독단적으로 했을 때 이혼비율도 높고 또 이혼 후 재혼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결혼 인연은 이웃의 중매나 사회적 모임에서의 연애결혼이 이혼율은 높고 부모나 친척의 중매가 가장 낮으나

이혼 후의 재혼은 이와 달리 연애이전 중매이전 친구나 동료로 통해서 결혼했다 이혼한 경우의 재혼율이 낮았다.

이들 중에서 유의한 결정요인으로서는 남편연령이 20세 미만이나 35세 이상인 경우와 결혼을 당사자나 부모가 단독 결정했을 경우가 로지트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이혼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혼 결정요인은 이혼시 연령이 적을수록, 초혼시 교제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막내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지고 있지 않다가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결혼을 어떻게,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여러가지 초혼 이혼과 재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결혼결정 관련 요인 및 이혼시 상황변수에 국한하였으며, 또한 이혼 및 재혼의 조사대상자수가 얼마되지 않아서 코호트별 차이나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참 고 문 헌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공세권 외,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변화순, “한국의 이혼율 변동에 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고찰”, 한국인구학회지, 제 10권 제 2호, 1987, pp. 1~17.
 이태영, 한국의 이혼율 연구,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1981.
 이태영, 한국의 이혼율 연구 II,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1989.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2.
 통계청, 인구동태신고, 1991, 1990, 1982.
 Coleman, M., and Lawrence H. Ganong, “Remarriage and Stepfamily Research in the 1980s : Increased Interest in an Old Family For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990, pp. 925~940.
 Greenberg, E.F., and W. Robert Nay,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 Instability Reconsidere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1982, pp. 335~345.
- Kahn, J.R., and Kathryn A. London, "Premarital Sex and the Risk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991, pp. 845~855.
- Martin, Teresa Castro, and L.L. Bumpass, "Recent trend in marital disruption", *Demography*, 26, 1989, pp. 37~51.
- Thornton, Arland, and Willard Rodgers, "The Influence of individual and historical time on marital dissolution", *Demography*, 27, 1987, pp. 1~22.
- Trent, Katherine, and Scott South, "Structural Determinants of the Divorce Rate: A Cross-socit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989, pp. 391~404.
- Weitzman, Lenore, *The Divorce Revolution*, N.Y. : Free Press, 1985.
- White, L.K., "Determinants of Divorce: A Review of Research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990, pp. 913~924.

<Summary>

Effects of Sociodemographic and Marriage Related Variables on Divorce and Remarriage among Korean Women

Moon-Hee Suh*

The divorce rate(No. of divorces per 1,000 marriages) in 1991 was 11.7, which had increased rapidly from 3.9 in 1970. Though the rate is of course not so high compared to that of western countries, it has increased greatly in the last 20 years owing to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women's status including increased opportunity of employme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actual state of divorce in the first marriage and remarriage after that and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divorce and remarriage among Korean women.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7,462 ever married women aged 15~49, which was collected through 1991 Survey on National Fertility and Health conducted by KIHASA. The analytic method was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d logit regression.

Among the respondents 1.6% answered that they experienced divorce in the first marriage. The average marriage duration of the divorced was 7.5 years and average age at divorce was 29.5 years old. Their average number of chil-

dren was 1.3, and main reason for divorce was discrepancy in character.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of divorce was whether the husband's age at marriage was younger than 20 or older than 35 and whether marriage was decided by themselves or their parents alone without consent between them. Besides, educational level of women, age at marriage of women, duration of acquaintance before marriage also influenced the divorce in the first marriage. Those women whose educational level was not higher than primary school, who married before 20 years old and married without having more than 1 month's acquaintance period showed relatively high divorce rate.

Among the divorced women about 40% remarried. Th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remarriage showed that younger age at divorce, shorter duration of acquaintance in the first marriage and no-burden of children were significant influential variables.

*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KIHASA)